

한국인 영아초기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행동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 경 자*

I. 서 론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영아의 어머니가 행하는 육아 관행이나 행동 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초기모아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Brazelton, 1983 ; Choi, 1984 ; Klaus & Kennell, 1982 ; Rojas, 1980 ; Stern, 1977 ; Talbot 외, 1971). 또한 Dixon 등(1984)은 초기에 모아 상호작용은 이상적인(Ideal) 혹은 보편적인(Universal) 양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우선 특정한 문화적 맥락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의 어머니는 사회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전통 문화를 전수 받은 하문화로부터 신념을 이어 받음으로서, 그러한 신념은 영아에 대한 지각, 태도 둘째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iehardt, 1971 ; Klaus & Kennell, 1982 ; Sroufe, 1985 ; Thomas & Chess, 1977 ; Tulman, 1981).

Choi(1984)는 미국 거주 한국인 어머니의 임신, 출산, 산육 및 육아 실천의 문화적 특성을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Kruger & Maetzold(1983)도 그의 탐색적 연구에서 임신모의 실천 사항에 대한 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기술한 바 있다.

영아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문화적 특성은 영아 초기의 독특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한국인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한국적 모아 상호작용의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세기 동안 여러 문헌에서 보여주는 결과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출생전의 생물학적 잠재력 보다는 생후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돌봄을 제공하는 영아의 어머니 혹은 그 대리인 임을 암시하여 왔다(Brazelton, 1983 ; Caldwell, 1971 ; Lewis & Goldberg, 1970 ; Turley, 1985). 초기 영아가 그의 어머니와 가지는 상호관계는 사회화 과정의 시초이며 발달의 원천이 된다(Bowlby, 1983 ; Coates & Lewis, 1984 ; Maccoby, 1984 ; McNeil, 1971). 그러나 초기의 모아에게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불안정한 모아 상호관계가 형성되고(Belsky, 1984 ; Jeremy & Bernstein, 1984), 따라서 영아는 저항적이거나 공격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되며(Sroufe 외, 1985), 심지어는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Bigner, 1985 ; Klaus & Kennell, 1982 ; Lipkin, 1978 ; Shaheen, 1968 ; Smart & Smart, 1977).

아동은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고 있는 개체로서 아동의 건강을 성장, 발달을 지속하는 상태라고 가정 할 때

영아 초기의 모아 상호작용은 아동의 건강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더우기 의존성을 특성으로 하는 초기 영아에게는 생존이나 생존의 질이 그의 어머니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Tuley, 1985).

그러므로 영아 초기에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이 유발될수 있도록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Beisly(1984)는 초기의 부모들이 영아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또한 Klaus & Kennell(1982)은 출산 직후, 의사나 간호사의 영아에 대한 태도와 관행의 시범은 산모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의 자원의 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Bower(1982)는 병원에서 종사하는 전문인의 행동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후속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만후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영아에 대한 학습 경험의 기회가 영아의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르러 그 행동 양상에 대하여 외국의 문헌에는 상당한 양이 보고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적 연구 몇 편을 제외하고는 이분야의 연구가 극히 미약한 편이다.

간호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해 대상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통하여 돋는 활동으로서 대상자와 간호사가 공통의 민족 문화적 개념틀 안에서 같은 문화적 신념을 근거로 하여 공통의 행동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간호과정을 적용한다면 간호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Leiniger(1984)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는 질병의 예방, 회복 그리고 건강한 생활형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호의 현장에서 간호사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간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고, Reimer 등 (1984)도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한국인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안다면 모아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나 전문가가 초기 영아와 그의 어머니의 건강 요구를 타당성 있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로 수집된 질적 자료들은 한국적 간호이론 정립에 필수적인 기초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모아 상호작용의 시작이며 모아의 상호작용에 매우 유의하다고 간주되는 수유상황이 본 연구를 위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루는 현상으로서 선정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를 요소는 무엇이며 영아의 어머니에 의해 지각된 영아에 대한 문화적 신념은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이다.

3. 문제의 진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는 무엇인가?

- 1) 영아의 어머니가 그의 영아에게 나타내는 행동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2) 영아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내는 행동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3) 영아의 어머니와 영아가 동시에 나타내는 양각적 행동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하문화적 특성에 따라 영아의 어머니가 그의 영아에게 나타내는 수유시 상호작용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 1) 어머니가 그의 영아에게 나타내는 행동에는 벽지와 도시 지역간의 어머니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어머니가 그의 영아에게 나타내는 행동에는 경산 도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인 어머니가 지각한 그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아래의 용어들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정의된 것이다.

초기 모아 상호작용 : 분만후 1~5일 이내의 모아가 수유시 상호간에 보여주는 반응을 말하며 행동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신념 :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된 민간층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직접 관찰, 추론 혹은 정보 수집을 통하여 지각된 주관적 세계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적 신념은 태도, 의도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보의 기초

가 된다.

벽 지 : 하문화체계의 한 소단위로서 임산모가 보건진료원이나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개조를 받아야 하는 무의촌 지역의 오지를 말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초기 모아 상호작용의 시작이며 모아의 상호작용에 매우 유의하다고 간주되는 수유상황에서 일 회의 관찰로서 자료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동은 관찰자 앞에서 위축되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있어, 비록 전국적인 자료수집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연구의 결과를 모아 상호작용의 행동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모아관계에 관련된 이론들 중에서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간호학적 접근에 관련된 개념에 국한시켜서 문헌적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1. 모아 상호작용의 이론적 접근

가. 모아 상호작용의 발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는 모아의 결속(Bonding) 관계이다(Bigner, 1985). 모아의 양방향적 애정의 유대 관계인 애착(Attachment)에 비교하여 어머니에게서 그의 영아에게 일방향적으로 성립되는 관계를 결속(Bonding)이라고 Klaus & Kennell (1982)은 설명하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결속은 모든 인간들의 유대중에서 가장 강한 관계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영아가 출생전의 태아로 있을 때나 출생후 그의 어머니에게 의존하였다가 분리된 개체로 될 때까지 어머니는 그의 영아의 생존을 보장시켜 준다. Klaus & Kennell (1982)은 이러한 어머니의 '그의 영아에 대한 결속 관계는 그 힘이 너무 강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를 위하여 서는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 했고, 이러한 근원적인 모아 결속은 영아가 그의 어머니에게 형성하는 애착의 주요소가 되며 구체적인 모아관계를 성립시킨다고 했다.

모아 상호작용 이론은 모아 애착관계 형성의 또 다른 접근으로서 모아 결속의 시발과 촉진요소로서 상호작용

의 형태에 주력한다(Tulman, 1981).

Stern(1977)에 의하면 모아 관계는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분리된 상호작용들의 모든 역사가 모아 관계이며,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상호작용들의 합 이상을 내포함으로써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계속하여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모아 상호작용은 정지된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이다(Belsky, 1984 ; Thomas & Chess, 1977). 모아 상호작용 이론은 근본적으로 영아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아가 능동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출생 당시부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Tulman, 1981). 영아는 그의 어머니로부터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얼굴표정 그리고 몸동작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기도 한다(Thomas & Chess, 1977). Brazelton(1983)에 의하면 정상적인 영아들은 모두 같지 않고 각각 독특한 뿐만 아니라 그 자신 혹은 그의 세계에 대하여 학습할 역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Bigner(1985)는 모아관계를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체계로서 각개인은 행동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로서 일련의 행동에 참여하는 상호작용 체계로 보았다.

Klaus & Kennell(1982)은 모아의 행동들이 몇 종류의 감각 운동체계안에서 상호 교호하고 그 결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했다.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 Lester 등 (1985)은 생물학적 리듬에 기초를 둔 행동주기가 초기 모아 상호작용을 이루며 그러한 상호작용은 인지적, 애정적 경험의 조치를 위한 일시적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나.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아관계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반면에 복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되기는 힘들지만 Barnard (1974)에 의해 개발된 NCAP(Nursing Child Assessment Project)은 모아 상호작용에 관여되는 수많은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영아의 특성으로는 행동, 수면 양상, 외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적응하는 능력과 기질을, 둘째, 어머니의 요인으로서, 심리, 사회적 자산(Assets), 건강 상태, 어머니가 경험했던 생활의 변화량, 영아에 대한 관심, 기대 및 돌봄의 형태와 적응 기술 그리고 셋째, 모아가 속해 있는 환경의 요건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Klaus & Kennell(1982)은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식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영아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어머니 자신이 양육 받을 때의 돌봄의 양상, 임신 전에서부터 임신과 분만의 전 과정 동안의 경험, 또한 분만과정 중 받았던 지지의 종류와 가족 관계, 모아 동실 혹은 분리등의 환경 조건을 제시 했으며, Peterson & Hehl(1978)은 분만 경험의 만족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했고, Tulman(1981)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 했는데, Kennedy(1973)도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 행동들은 그들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Rubin(1977)은 분만후 모아 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촉진되며, 영아의 성, 신체적 조건으로 체중 및 신장, 그리고 건강상태에 의해 달라진다고 하였고, Thomas & Chess(1977)는 각각의 영아가 갖는 기질적 특징들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이 어머니의 태도나 돌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lsky 등(1984)은 영아의 출생순위, 월령, 성, 그리고 어머니의 결혼생활이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 했다.

Moss(1968)는 모아 상호작용의 구성요소인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아의 의식 상태로서, 영아의 울음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능력은 사회적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아의 의식 상태를 조절함으로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했으며, 또한 Porter(1983)는 모아 상호작용에 있어 상호 후각적 신호는 의사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반면 Egeland & Farber(1984)는 영아의 특성, 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모아가 서로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행동에 따라서 모아 관계가 변형된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중재에 역점을 둔 연구 보고도 상당량이 있다. 분만 직후의 모아 피부접촉시간이 연장 되었거나 피부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켰을 때 경우에 모아 상호작용의 행동이 증진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문헌으로 보고된 바 있다(Curry, 1982 ; Klaus, 1972 ; O'connor 등, 1980 ; 임, 1984). 또한 영아의 사회적 능력을 어머니에게 인식시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높여 줌으로서 상호작용의 질을 높여 주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Anderson, Choi, 1986). Jessop(1981)은 임신중 태아와의 상호작용, 즉 태위(Fetal position)의 확인과 태동의 인식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며, 애기를 싸고 있는 복벽을 손의 접촉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통해 산후 모아 상호작용의 증진 가능

성을 암시해 주었다.

다른 한편 Brazelton(1983)은 모아 상호작용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Choi(1984)는 미국 거주 한국인과 미국인의 영아의 행동과 모아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한 획문화적 연구에서 미국인 영아에 비하여 한국인 영아가 훨씬 더 빨리 습성화(Habituation)되고 미국인 영아는 의식상태의 조절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여준 반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미국인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고 보고했는데 그러한 결과는 두 문화 사이에 독특한 차이가 혼합되어 버린 이유로 해석했다.

Rojas(1980)는 민족의 문화, 지역적 위치 및 사회적 지위가 어머니의 영아 양육관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민족의 문화적 가치, 기대가 임신, 분만과정 나아가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Klaus & Kennell(1982), Dixon (1984), Thomas & Chess(1977) 등이 보고하고 있다.

다. 모아 상호작용 행동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서 Coates와 Lewis(1984)는 모아의 행동 특성별로 크게 자극과 반응의 범주로 나누어 접촉, 운동, 음성 및 감정적인 자극과, 음성, 접촉, 시각적 반응과 근거리, 원거리 반응으로 나누어 분류했으며, Belsky 등(1984)은 모아가 보여 주는 호혜적 상호작용을 어머니의 발성, 영아의 발성, 자극 유발에 따라 영아가 보이는 반응 또는 탐색(searching), 응시, 그리고 모아가 접촉적으로 보이는 반응의 단계 등을 그 양상으로 들고 있다.

Avant(1982)는 모성의 애착 요소 항목으로 영아를 안는 동작, 영아의 의식 상태, 피부 접촉, 주의 집중, 자세, 수유 동작, 트림 시키기, 노래 부르기, 미소, 이야기, 웃얼거림, 그리고 입맞춤을 들었으며 Price(1983)는 분만 후 3개월 이내의 모아가 수유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으로 모성, 영아 그리고 모아 양각적(Dyadic) 행동의 범주로 분류하여 모성의 행동으로서는, 신체적 공간적 거리, 영아를 안는 자세, 기분(Mood), 음성적 표현, 시각적 행동, 자극과 돌봄의 형태를, 영아의 행동에서는 의식상태, 기분, 음성, 시각적 행동, 자세, 수유 동작, 그리고 즐거움의 동시성 반응, 수유 시작과 종결에 대한 총 25개의 행동 항목을 개발해 냈다. 한편 Price의 도구를 변형하여 Walker(1982)는 수유 후 모아가 놀이 시간에 상호작용하는 행동양상을 연구하였는데, 영아를 안는 영아 어머니의 동작, 형태, 감정의 표현, 영아의 미소 유

ovel 시도 행동, 그리고 영아의 반응 행동과 의식상태를 나누는 행동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술 했었다. Klaus & Kennell(1982)은 어머니의 호혜적인 신호작용 행동으로 피부 접촉, 시각적 접촉, 음성, 리듬, 도아의 양각적 행동을 들었으며 영아의 행동으로는 시각적 접촉, 울음, 냄새, 그리고 주기적 리듬을 상호작용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영아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유도 행동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연구를 했던 Stern(1977)은 시공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모아의 행동 형태를 기술하였는데 전체적인 행동에서 어머니는 든 아동이나 성인을 대할 때와는 달리 영아에게는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 표정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극대화 해 가는 과정된 두 가지 공통점을, 음성적 표현에서는 내용과 운율적 측면으로 나누어 매우 단순한 문장에서부터, 중얼거림, 비상식적 소리(Nonsense sound), 변형음의 특성을 발견했으며 기타 얼굴과 머리 동작, 접촉거리의 밀착성이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Dunbar(1977)의 보고에 의하면 초기 영아 어머니의 대부분의 행동이 능동적이고, 분리되어 있으며, 순간적이고, 비교적 접촉 거리가 먼 행동이었고, 반면 수동적이고, 지속적이며, 밀착성 행동 빈도가 적었다고 나타나 있다. 이, 김(1981)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었던 도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였는데 번안된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초기 모아의 상호작용을 측정, 분석한 결과 시각적 접촉 빈도가 가장 높았고, 언어적 접촉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으며, 접촉행동 중에서는 영아의 사지나 머리를 손끝으로 만지는 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심(1984)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분만 직후 그들의 영아에게 나타냈던 가장 많은 행동이 언어적 접촉으로, 영아의 외모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시각적 접촉이 그 다음 행동으로 헤롯 바라본 순간적인 접촉이 가장 많았으며 행동 종목은 다양하지 않으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간호학적 접근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현상 그 자체에서 연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개념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의 기본 가정은 없을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는 민속 간호에 대하여 기념적 고찰로서 간호학적 접근을 해 보고자 한다.

간호에 있어 중심이 되는 개념은 돌봄(caring)이며 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의 만남에 영향을 주는 신념,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Watson, 1979).

진실한 돌봄이란 대상자의 내적 세계까지 이해하는 것이며, 간호의 현상에 대한 충분한 통찰을 통하여 돌봄은 성취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돌봄의 행동, 과정, 요구, 결과, 갈등, 격차들과 관련된 돌봄의 구성요소들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Leininger(1978)는 주장하고 있다. Leininger에 의하면 건강 요원의 필수적인 목적은 일차적으로 대상자가 가진 문화적 가치, 우선순위, 문화적 그룹의 특성, 그리고 그들을 도울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인간을 돋는 간호가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문화적인 고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속과학 방법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문화적 인지와 지각에 대하여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는 것과 효과적인 간호계획과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자의 귀나 눈 혹은 경험을 통하여 볼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틀에 박힌 간호가 아닌 환자의 세계를 충분히 고려한 창의력 있는 간호가 성립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Ragucci(1972)는 이러한 민속과학 방법의 활성화에 대하여 강조했는데 건강과 관련된 문화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인위적이 아닌 자연환경속에서 관찰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민속과학 방법으로 정확하게 얻어지는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민속간호는 그 접근과정에서 현상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된다.

현상학적 접근에서 말하는 현상(Phenomena)이란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대상이며, 사태(events)이다. 그러나 일차적인 관심은 대상 그 자체의 존재에 있지 않고, 대상이 어떻게 보여 지는가에 있다(Oiler, 1982)는 것이다.

철학이자 접근이며 방법인 현상학(Phenomenology)은 간호전문적이 대상자의 경험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간호사-환자 관계의 질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의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Oiler, 1982). 김(1984)에 의하면 현상학은 학문연구에서 객관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주관성을 높여 생명력 있는 인간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에 있어 현상학적인 요소의 병합은, 인간의 전체성(Wholeness)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대상자가 겪는 경험을 주관적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진실로 이해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Watson, 1979).

응용과학으로서의 간호과학은 인간의 신체적 구조나 기능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험, 행동, 느낌,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이 있으며(Phillips, 1977), 특히 그 예술적 측면의 특성에 있어서, 인간행동의 목적과 경험을 이해하며, 정서적 반응을 깊이 고려하므로서 개인차와 독특성, 경험의 다양성과 질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객관적 틀에 의존하기보다는 상상력, 통찰력, 창조력 발휘에 주력하게 된다(Watson, 1979). 이러한 간호학적 특성은 현상학적 접근의 간호연구가 돌봄의 간호과학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결론적으로 지정된 문화권 속에서 고유한 문화적 신념과 가치체계에 따라 형성된 건강과 돌봄의 신념은 그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행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민속간호는 그러한 문화적 독특성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돌봄의 관행으로서 인간을 돋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또한 그러한 민속간호는 문화적인, 그리고 인간의 산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풍부한 질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문화현상을 emic 혹은 etic 분석으로 이해하려는 민속과학 방법과 대상자인 인간의 산 경험을 자료로 하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돌봄을 핵심으로 하는 민속간호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 영아 초기의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를 밝히려고 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속학적이며 현상학적인 접근의 연구를 시도 하였다.

1. 연구 대상

현재의 민간생활을 대표할수 있고 나아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대중, 소, 도시와 문화의 전승체로서 간주되는 벽지에서 모유 수유의 시작시기인 분만후 1~5일 이내의 모유 수유를 계획하는 모아 25쌍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986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5개월간 전국의 9개도 중에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6개도의 리, 단위이하의 벽지 5개지역과 6개 도시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병원, 조산소, 모자보건센터 및 가정에서

분만된 모아였으며, 대상의 인위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다.

가. 영아 어머니의 특성

연구 대상이 되었던 어머니들은 모두 자연 분만하였고 임신이나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출산 경력은 초산이 15명 경산이 10명이었으며, 초산인 15명중에는 자연유산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가 2명 있었다. 어머니가 출생한 이후 20년 이상 거주했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8명, 강원도 5명, 경기도 3명, 전라남도 3명 전라북도 2명, 경상북도 2명, 충청남·북도 각 1명씩이었고, 이들중 4명은 양가의 승인이 없는 가운데 임신을 하여 임신중에 결혼을 인정 받았으며, 전처의 아들이 있는 후처의 입장에서 첫 딸을 낳은 경우도 한 명이 있었다.

이들 어머니들이 분만 개조를 받았던 기관별로 보면 대도시의 종합병원 7명, 소도시 종합병원 1명, 개인병원 2명, 군 모자보건센터 7명, 조산소는 대도시에서 4명, 중, 소도시에서 2명 그리고 벽지의 가정 분만이 2명 있었다.

연령 범위는 23세에서 33세까지 평균 26.84세였고,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 7명 고졸 9명 중졸 7명 한글 해독자의 국적이 2명 있었다. 어머니의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가 4명, 천주교 1명, 원불교 1명, 그리고 19명은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나. 영아의 특성

분만 기관이 일정치 않고 자료의 수집장소가 인위적이나 아닌 애기의 집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출생시 정보는 부족하였으나 25명의 영아가 모두 만삭아로서 분만에 따른 합병증이 없고 수유, 배설, 수면 그리고 운동 상태가 모두 활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아 13명, 여아 12명이었고, 출생 순위별로 보면 첫째 15명, 둘째 8명 그리고 셋째가 2명이었다. 첫째 아들은 5명이었으며, 아버지가 장남인 경우는 2명이었으며 아버지가 3대 혼자인 경우도 한명 포함되어 있었다.

2. 자료 수집 환경

자료 수집장소는 병원 혹은 모아의 집으로서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모아는 병원 환경에서, 개인 병원, 모자보건센터, 조산소에서 분만한 경우와 가정 분만한 모아

는 가정 환경에서 자료가 수집 되었다.

가. 병원 환경

어머니와 영아는 분리된 방에 입원 되어 매일 오전에 목욕과 신체 계측이 끝난 후 신생아실로 부터 어머니의 입원실로 옮겨져서 침상위에서 수유하게 되며 분만후 3일째에 퇴원하게 된다.

나. 가정 환경

어머니와 영아는 같은 방에서 원한다면 언제나 수유가 가능하다.

3. 예비 조사

한국인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와 영아에 대하여 지각한 어머니의 문화적 신념에 대한 예비 조사는 민속학적이며 현상학적 접근의 연구 설계가 실행 가능성 있는지를 결정하고, 자료의 수집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 조사 절차

대도시 종합병원, 중, 소도시의 개인병원과 조산소에서 소개 받은 5쌍의 모아를 대상으로 분만후 수유가 시작되는 3일이내에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을 한 명의 관찰자와 함께 영아가 그의 어머니의 팔에 안긴 순간부터 수유가 끝나고 어머니의 팔에서 내려놓는 순간까지 관찰한 후 즉시 관찰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포함한, 관찰된 모든 행동을 기록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대상자가 분만 개조를 받은 기관은 종합병원 3명, 개인병원과 조산소가 각 1명씩 이었으므로 자료수집 장소가 4명은 병원 환경이었고, 한명은 가정 환경이었다.

관찰의 예비조사 결과, 관찰된 행동을 신속한 시간내에 상세히 묘사할수 있는 기록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예비조사에서 나온 총 92가지 행동 종목에 대한 상징적 부호와 모아 한 쌍에 대한 일련의 행동을 기록할 관찰 자료 기록지를 개발하였다.

한 면에 총 25분간의 행동 내용을 기록 할 수 있는 관찰 자료 기록지에는 모아의 행동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 할 공란을 마련했다.

또한 반복 관찰을 할 경우 세 번을 왕래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관찰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여야 했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문화적 신념을 밝히기 위한 면담 방법은 준 조직적 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시행 가능성 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분만 후 3일이내의 모아를 대, 중, 소도시 그리고 벽지에서 꿀고루 모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분만후 5일이내로 연구 대상의 제한 범위를 넓혔다.

나. 관찰자 훈련

예비 조사와 함께 관찰자 훈련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예비 조사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던 모아 5쌍중 4쌍에 대한 관찰과 기록이 12회에 걸쳐서 연구자와 함께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관찰법, 행동의 묘사와 상황적 맥락에 대한 기록 훈련을 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나타난 행동 종목에 대하여 상징적 부호를 개발하는 활동에 관찰자를 참여시키는 일과 상징적 부호를 이용한 기록 훈련도 필요했다. 그리하여 총 3쌍의 모아를 대상으로 관찰한 후 연구자의 기록과 관찰자의 상징적 부호 기록과 비교하여 행동 종목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연구자와 관찰자의 역할을 바꾸어 관찰, 기록하여 일치도를 측정하였고 마지막에는 연구자와 관찰자가 상징적 부호를 기록하여 일치도를 비교하였다. 각 3회씩의 관찰과 기록중 마지막 9회 관찰에서 .91의 일치도를 보여 주었다. 관찰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로 한달간의 훈련기간을 가졌다.

4. 자료 수집

가. 절 차

자료 수집 장소가 종합병원인 경우 연구자는 공문이나 전화로 사전에 협조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 유무 확인을 시시로 한 후 대상자가 있을때에 내방하여 병동 책임 간호사의 안내와 소개로 연구 참여에 대한 승인을 구두로 받고 자료를 수집했다.

대도시나 중, 소도시의 병원 혹은 조산소에서 분만 개조를 받았던 어머니들은 병원이나 조산소에서 연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어머니에게 주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관찰자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 연구 참여 승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 장소가 벽지 오지의 대상자 집일 경우에는 그곳 보건진료원 혹은 모자 보건 센터를 관찰하는 도청 보건과에 의뢰하여 대상자 파악을 한 후 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찰 보건 요원의 안내를 받고 가정 방문하여 연구 참여 승인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간호사로 소개

하였고, 동행했던 관찰자도 간호사로 소개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승인을 어머니로부터 받기 위하여 수유시 영아의 행동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 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는 방문 목적을 밝히고 또한 연구자는 어머니와 그의 영아에 대한 건강상담을 할수 있다는 것도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영아에게 수유시키는 동안에는 관찰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상담에 응할수 없음을 밝히고, 자료 수집 시간에는 방해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주위를 정돈하였다. 상담을 요청해 왔던 경우는 태아의 청각 능력과 영아의 피부상태에 관하여 5명의 어머니에게서 질문이 있었다.

나. 관찰

연구자와 관찰자는 수유시간 동안 모아의 양 옆에 위치하여 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순간부터 손에서 내려놓을 때까지 모아의 행동반응을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관찰시간은 끝 수유시간이었으며 8분에서 53분까지 소요시간이 다양했으며 평균 15.6분간 이었다.

1회의 관찰 직후에는 상정적 부호로 관찰자료 기록지에 기록하였고 기록이 끝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면담

녹음을 이용하여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로 시작하여 서서이 영아에 대한 신념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면담에 30~50분간 이었다.

5. 자료의 분석

가. 분석 단위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관찰단위는 영아의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아의 어머니와 영아가 기본적인 관찰단위가 되었으며 관찰의 결과 영아의 어머니와 영아가 동시에 나타낸 행동을 따로 분류하여 모-아를 추가했다. 그리하여 영아 어머니, 영아 그리고 모-아의 행동이 분석단위로 분류되었다.

영아에 대한 신념은 영아의 어머니들이 나타낸 반응으로, 명백하게 표현했거나 합축적인 말로서 표현한 영아의 기능이 분석단위가 되었다.

나. 분석의 범주들

ㄱ.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수유 상황에서 영아의 어머니, 영아, 그리고 모-아가 동시에 보여준 모든 행동의 구성요소들은, 각 구성요소들이 내포하는 행동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1) 영아의 어머니

- i. 준비행동
- ii. 도구적 행동
- iii. 상호작용 유도행동
- iv. 종결행동

2) 영아

- i. 준비행동
- ii. 도구적 행동
- iii. 상호작용 유도행동

3) 모-아

- i. 동시성 상호작용 행동
 - ii.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아에 대한 신념은, 영아의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기능적 가치에 따라 분석적으로 범주화 되었다.
- i. 결혼의 완성
 - ii. 결속
 - iii. 친족간 조화조정

다. 신뢰도

신뢰도 검증은 연구자와 관찰자, 2인에 의해서 관찰되어 기록된 각 행동종목의 빈도에 대한 두 관찰자간의 일치도와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분석적 범주화에 대한 전문가와의 일치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ㄱ. 관찰

영아의 어머니, 영아 그리고 모-아가 동시에 보여 준 행동의 총관찰 항목에 대한 일치도는 92%(3021 / 3275)였으며, 분석단위별로는 영아의 어머니가 보여준 행동에서 91%(1411 / 1559), 영아의 행동, 94%(1488 / 1590), 모-아 양각적 행동이 98%(122 / 125)였다.

분석 단위에 따라 분류된 분석적 행동 범주별로 보면, 아의 어머니에서 준비 행동, 89%(67 / 75), 도구적 행동 10%(574 / 640), 상호작용 유도행동, 90%(692 / 73), 종결행동에서 94%(67 / 71), 의 일치도를 보여 주었고, 영아에 있어서는 준비행동, 92%(120 / 130), 도구적 행동, 95%(1020 / 1076), 상호작용 유도행동, 90%

(348 / 385)이었으며 모-아 양각적 행동에서는 동시성 상호작용 행동에서 98%(122 / 125)의 일치도를 보여 주었다.

분석적 범주화에 대한 전문가와의 일치도는 89%였다.

ㄴ. 면담

회화체로 기록된 녹음 자료중 임의로 뽑은 8명의 어머니에 대한 21면의 노트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자의 범주화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82%의 일치도를 보여 주었다.

라. 자료의 환원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단위와 분석적 범주로 분류된 자료들은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소 범주 체계의 구성요소별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한 영아 어머니의 준비활동, 도구적 행동, 상호작용 유도행동에 대하여 벽지와 도시 지역의 어머니, 그리고 경산모와 초산모 사이의 행동 비교를 Chi-square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영아 어머니의 종결 행동에 대해서는 통계적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분포의 수치로 인해 통계적 분석은 시도 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영아 어머니의 행동, 영아의 행동 그리고 모-아 양각

적 행동은 연구 대상이었던 25쌍의 모아가 총 3,275의 행동빈도를 나타내었고 그중 영아의 어머니가 보인 행동 빈도는 1,559(48%), 영아의 행동 빈도는 1,591(49%), 모-아의 양각적 행동 빈도는 125(3%)였다.

영아 초기의 수유시간으로는 한쌍의 모아가 1회 평균 15.6분을 소요한 셈이며 1분간 평균 약 8회의 행동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 영아 어머니의 행동

영아의 어머니가 보여준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은 준비행동(75회, 5%), 도구적 행동(640회, 41%), 상호작용 유도 행동(773회, 50%), 종결행동(71회, 4%)으로 나뉘어져 상호작용 유도행동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ㄱ. 준비행동

1) 신체적 준비행동

수유시키기 위한 조건이 되는 유방과 유두의 조건을 나타내는 행동이 표현되는 것이다. 유방과 유두의 조건을 나타내는 어머니의 행동은 세가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25명의 어머니중 4명은 수유시키기 위해 영아를 양팔로 들어야 했고, 수유시키는 쪽의 팔만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13명, 그리고 팔꿈치를 들지 않아도 수유가 가능한 경우는 8명이었다. 유두의 조건은 돌출되지 않고 편평하여 수유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한명이 있었고, 돌출되어 영아가 불편없이 입에 넣을수 있는 경우는 24명이었다(표1-1 참조).

〈표1-1〉 수유를 위한 어머니의 신체적 준비

	조 건	명 (%)
유방	수유시키기 위해 애기를 양팔로 들어야 한다.	4 (16)
높이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들지 않아도 수유가 가능하다.	8 (32)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들어야 수유가 가능하다.	13 (52)
계		25
유두	평 돌 출	1 (4) 24 (96)
계		25

2) 심리적 준비행동

영아에게 수유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 준비상태로 언어적 표현과 동작으로 나타났다.

i. 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에서 아무 말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는 3명(12%)이었고, 수유시키기를 기대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7명(28%), 그리고 수유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하는 경우는 15명(60%)이었다. 수유시키기를 기대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지?” 혹은 “먹어 볼까?” 하고 영아에게 묻거나 “어떻게 하지요?” 하고 연구자에게

질문하여 배우려는 의사를 나타낸 말이다. 수유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하는 어머니는 대부분 “젖이 작아서 …”, “젖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고 말하며, 모유 분비가 될 것인지, 모유량이 충분할 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유방의 크기와 모유의 양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3명의 경산부인 어머니는 모유 분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먹이면서 “애기가 젖은 안빨고 우유병만 잘 빴다고 불평했는데 모두 분만후 6시간

이내에, 분만개조를 받은 기관으로 부터 집으로 돌아온 경우였다(표1-2 참조).

ii. 동작

25명의 어머니 중에서 영아에게 수유를 시키기 위한 준비로 유방을 닦고 맛사지를 하는 적극적인 동작을 보여준 어머니는 12명(48%)이었고, 아무 동작도 없이 있었던 경우는 9명(36%), 그리고 오히려 유방을 내어 놓기를 주저한 어머니는 4명(16%)이 있었다(표1-2 참조).

〈표1-2〉수유를 위한 어머니의 심리적 준비행동

		심리적 준비 행동	회	(%)
언 어 적 표 현	말없이 수동적으로 응한다.	3	(12)	
	수유시키기를 기대하는 말을 한다.	7	(28)	
	수유시킬 수 있을지를 의심스러워 한다.	15	(60)	
	계	25	(100)	
동 작	유방 내어놓기를 주저한다.	4	(16)	
	동작 없음	9	(36)	
	유방을 닦고 맛사지를 한다.	12	(48)	
	계	25	(100)	

ㄴ. 도구적 행동

1). 자세

어머니가 영아에게 수유를 시키기 위하여 수단이 되는 행동으로, 얼굴방향, 팔, 다리의 자세와 수유 유도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얼굴의 방향

수유하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이 향한 방향에 대한 것으로 총 165회의 얼굴방향에 대한 행동이 관찰되었는데

애기와 관련된 물품에 향하는 경우는 7회(4%), 주위 사람을 향한 빈도는 37회(22%)였고, 애기의 얼굴을 향하는 경우는 121회(73%)였다. 애기의 물품으로는 기저귀, 애기를 싸고 있는 천, 옷, 수건 등이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볼때 애기와 관련된 물품이나 주위사람에게 향하는 순간적인 시간외에는 모두 애기 얼굴을 향한 자세였기 때문에, 상황적 맥락에서 볼때 행동 빈도는 시간상의 비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표1-3 참조).

〈표1-3〉수유시 어머니의 수유자세

		수 유 자 세	회	(%)
얼 굴 의 방 향	애기의 물품에 향해 있다.	7	(4)	
	주위 사람에게 향해 있다.	37	(23)	
	애기 얼굴에 향해 있다.	121	(73)	
	계	165	(100)	
팔 동 작	한 손바닥으로 애기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애기의 둔부를 받쳐준다.	10	(10)	
	한 손바닥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쳐서 수유 시킨다.	14	(14)	
	두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한다.	35	(35)	
	한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한다.	42	(41)	
다 리 동 작	두 다리를 앞으로 나란히 뺏고 앉는다.	9	(13)	
	두 무릎을 끊고 앉는다.	16	(24)	
	한쪽 무릎을 위로 세우고 앉는다.	18	(26)	
	두 다리를 양 옆으로 구부리고 앉는다.	25	(37)	
계		68	(100)	

ii. 팔의 동작

수유시키기 위하여 애기를 안는 팔의 동작을 말하는 데 가장 안정감 있는 자세인 한 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하는 자세가 42회(41%), 두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하는 자세는 35회(35%), 한 손바닥으로만 애기의 머리를 받치는 자세가 14회(14%), 한 손바닥으로 애기의 머리를 받치는 다른 손으로 애기의 둔부를 받쳐주는 경우가 10회(10%)였다. 이러한 팔의 동작은 수유하는 동안에 한 어머니에게 몇번의 동작변화가 있었는데 스스로 유방의 조건에 따라 안정된 자세를 찾으려는 시도였으며, 초산부인 경우에 변화의 빈도가 높으며,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받쳐주지 않아도 수유가 가능한 유방 조건일 경우에는 한 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적하는 자세를 8명의 어머니중 7명이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3 참조).

iii. 다리의 동작

애기를 안는 팔의 동작과 함께 취하는 다리의 동작으로 두 다리를 양옆으로 구부리고 앉는 동작은 총 68회의 다리 동작중 25회(37%)로 가장 많았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 동작은 18회(26%), 두 무릎을 끊고 앉는 자세는 16회(24%)였고,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는 자세가 9회(13%)였다(표1-3 참조).

iv) 수유유도 행동

영아에게 수유를 하도록 자극하는 동작을 묘사한 것이다. 총 306회의 행동이 있었다. 어머니의 유방을 애기 입 가까이 갖다 대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46회(48%)로 나타났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쥐고 애기 입에 넣어 주는 경우는 73회(24%), 손가락으로 유방을 누르는 동작이 44회(14%), 손바닥으로 유방을 쥐고 짜는 동작이 43회(14%)로 나타났다(표1-4 참조).

〈표1-4〉 수유시 어머니의 수유유도 행동

	수 유 도	회 (%)
동 작	손바닥으로 유방을 쥐고 짜준다.	43 (14)
	손가락으로 유방을 누름	44 (14)
	손가락으로 유두를 쥐고 애기 입에 넣어 준다.	73 (24)
	유방을 애기 입에 가까이 갖다 댄다.	146 (48)
계	.	306 (100)

d. 상호작용 유도 행동

영아의 반응을 유발시키는 자극과 반응 행동으로 접촉, 응시, 표정, 발성으로 구성되었다. 상호작용 유도 행동의 총 빈도는 773회였는데, 91회(12%)의 접촉행동, 176회(23%)의 응시행동, 104회(13%)의 표정, 그리고 402회(52%)의 발성으로 구성되어 가장 많은 행동 빈도는 발성이었고, 그 다음의 응시, 표정, 그리고 접촉행동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1) 접촉

접촉의 빈도는 25명의 어머니에게서 총 91회로 나타났는데 이용된 어머니의 신체 부분별로 보면 손가락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73회(80%)였고, 손바닥을

이용한 경우 16회(18%), 그리고 얼굴, 즉 뺨과 입을 이용한 경우가 각각 1회로 총 2회(2%)였다. 접촉의 목표가 되었던 영아의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부분이 뺨이었는데, 34회(37%)였고 애기의 사용물품에 14회(15%), 애기의 턱이 12회(13%), 머리가 9회(10%), 손이 7회(8%), 입이 6회(7%), 이마가 4회(5%), 발이 3회(3%) 그리고 코는 2회(2%)의 순서로, 가장 많은 접촉 빈도를 보인 부분이 뺨이고, 가장 적은 부분이 코였다. 접촉의 양식은 토탱거리는 양식이 39회(43%)로 가장 많았으며, 살짝 누르는 접촉이 30회(33%), 문지르거나 비비는 양식이 13회(14%)였고 꼬집듯이 만지는 양식이 9회(10%)였다(표1-5 참조).

〈표1-5〉 수유시 어머니의 접촉 행동

	접 촉	회 (%)
이용된 신체 부 분	얼 굴	2 (2)
	손 바 닥	16 (18)
	손 가 락	73 (80)
계	.	91 (100)

코	2	(2)
발	3	(3)
이 마	4	(5)
입	6	(7)
손	7	(8)
머 리	9	(10)
턱	12	(13)
애기의 물품	14	(15)
뺨	34	(37)
계	91	(100)
꼬집듯이 만진다.	9	(10)
접촉 양식	13	(14)
문지르거나 비빈다.	30	(33)
살짝 누른다.	39	(43)
토닥거린다.	91	(100)
계		

2) 응 시

시선을 고정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며 수유시간 동안 176회의 응시행동중 영아의 눈과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

켰던 빈도는 164회(93%)였고 주위의 인물이나 사물을 응시한 빈도는 12회(7%)였다. 응시는 모두 10초이내에 서 시선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6 참조>.

<표1-6> 수유시 어머니의 응시행동

대 상	응	시	회	(%)
	주위의 인물이나 사물		12	(7)
	애기의 눈과 얼굴		164	(93)
계			176	(100)

3) 표 정

어머니가 영아에게 보여준 얼굴의 표정을 말하는데, 미소가 가장 많은 74회(71%)의 빈도를 보여주었고, 놀 람의 표정, 즉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는 동작으로 영아가 흡允을 시작할때 주로 나타나는 표정으로 13회

(12%)의 빈도를 보였고, 평그림이 10회(10%), 동정의 표정이 7회(7%)의 빈도를 보여 주었다. 얼굴표정의 양상에서 나타난 빈도는 역시 시간상의 구성, 그리고 준비 행동에서 얼굴의 방향과도 거의 일치한다<표1-7 참조>.

<표1-7> 수유시 어머니의 표정

얼 굴	표	정	회	(%)
	동 정		7	(7)
	평 그림		10	(10)
	놀 람		13	(12)
	미 소		74	(71)
	계		104	(100)

4) 발 성

어머니가 상호작용 유도행동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행동인, 음성을 이용한 반응과 자극행동으로서 발성

의 음률적 특성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짧은 문자으로 된 “먹는다” “싼다” “빤다” 혹은 “뭘보니?” 등의 147회 (70%)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음” “아” 등의 짧은

발성이 52회(25%), “쯧쯧” “찌찌” 혹은 “쭈쭈” 등의 변형음의 빈도가 12회(5%)였다.

애기에게 말을 하는 경우는 총 191회(70%)로 빈도로

써, 말의 억양에 따라 상냥하며 선율적인 경우는 134회(70%)로 나타났고 무뚝뚝하며 사무적인 경우는 57회(30%)로 나타났다(표1-8 참조).

〈표1-8〉 수유시 어머니의 발성행동

		발	성	회	(%)
음률적 특성	변형음			12	(5)
	짧은 발성			52	(25)
	매우 짧은 문장			147	(70)
계				211	(100)
말의 억양	무뚝뚝하며 사무적임			57	(30)
	상냥하며 선율적임			134	(70)
계				191	(100)

근. 종결 행동

수유를 끝내면서 어머니의 수유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분이 포함되어 언어적 표현과 얼굴표정으로 나타난다. 언어적 표현으로는 불만을 표현한 어머니가

12명(48%), 표현이 없는 경우가 9명(36%)이었고, 만족스러움을 표현하는 경우는 4명(16%)에 불과했다. 얼굴 표정은 무표정한 경우는 13명(52%)였으며 미소를 보인 경우가 12명(48%)였다(표1-9 참조).

〈표1-9〉 어머니의 수유 종결 행동

		기	분	명	(%)
언어적 표현	만족스러움을 표현			4	(16)
	아무 말 없음			9	(36)
	불만을 표현			12	(48)
계				25	(100)
얼굴 표정	미소			12	(48)
	무표정			13	(52)
계				25	(100)

나. 영아의 행동

영아가 보여준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은 준비행동, 130회(8%), 도구적 행동, 1076회(68%), 그리고 상호작용 유도행동 385회(24%)으로 나뉘어져 총 1,591회의 행동 빈도를 보여 주었다.

ㄱ. 준비행동

1) 의식상태

영아가 수유시에 보여준 의식상태는 4가지 수준으로 각성의 빈도가 17회(13%), 수면이 26회(20%), 졸음이 32회(25%), 울음이 55회(42%)의 빈도를 보였다(표2-1 참조).

〈표2-1〉 수유시 영아의 의식상태

		의식상태	회	(%)
각성			17	(13)
수면			26	(20)
졸음			32	(25)
울음			55	(42)
계			130	(100)

이러한 의식상태는 지속된 것이 아니고 변화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25명의 영아는 수유 시작 30초 이내에 각성상태가 12명(48%), 졸음이 9명(36%), 수면이 3명(12%), 울음이 1명(4%)이었는데, 수유시작시기에 각성내지 울음상태였던 13명의 영아가 수유가 끝났을 때에는 8명으로 감소하고 대신 수면이나 졸음상태가 17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ㄴ. 도구적 행동

수유를 위한 수단으로 표현되는 행동은 유두탐색과

수유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유두 탐색

어머니의 유두를 찾기 위한 머리동작으로, 유두를 찾아서 입에 물때까지 계속 머리를 훤파드는 경우가 101회(51%)로 가장 많고, 어머니가 유두를 갖다 대어주어도 반응이 없이 조용한 경우가 88회(45%), 유두를 찾기 위해 머리를 훤파다가 멈추는 동작이 8회(4%)로, 이러한 동작은 수유하는 동안 내내 수유동작과 관련하여 나타난 행동이었다(표2-2 참조).

〈표2-2〉 수유시 영아의 유두탐색 동작

		탐	색	회	(%)
머	리	유두를 찾기위해 머리를 훤파다가 멈춤		8	(4)
동	작	반응없이 조용함		88	(45)
		유두를 찾을때까지 계속 머리를 훤팠음		101	(51)
	계			197	(100)

2) 수유

영아가 유두를 물기 시작하여 흡혈하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돌입, 유두합입과 흡혈양식을 말한다.

i. 돌입

영아가 유두를 물기 시작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돌입 양식에서는 유두를 대어 주자마자 빨기 시작하는 경우가 172회(64%), 혀로 유두를 핥기만 하는 경우가 65회(25%), 유두를 대어 주어도 빨지 않는 경우가 30회(11%)로 나타났는데(표2-3 참조), 이러한 돌입 양식을 수유시작시 영아의 의식상태에 따라 그 빈도를 보면 유두를 대어 주자마자 빨기 시작하는 행동은 각성상태에서 7명 졸음상태에서 5명, 울음상태에서는 한명이 있었다. 또한 혀로 유두를 핥기만 하는 경우는 각성상태에서 7명, 졸음상태에서 2명, 울음상태에서 한명이

있었으며, 수면상태에서는 대어 주어도 빨지 않는 경우는 2명이었다(표2-3 참조).

ii. 유두합입

영아가 유두를 입에 무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두를 물었다가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로 113회(54%), 유두를 입에 물지 못하는 경우가 54회(20%)였는데 이러한 모든 양식은 개개인의 영아에게 유두탐색, 돌입, 흡혈 양식과 함께 일련의 행동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표2-3 참조).

iii. 흡혈

영아가 유두를 입에 넣고 빼는 동작을 말하는데 빨다가 중간에 쉬는 동작은 275회(68%)로 나타났고, 빨기를 계속하는 동작은 127회(32%)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 동작은 위의 유두탐색, 돌입, 유두합입과 함께 다양한

〈표2-3〉 영아의 수유행동

		수	유	회	(%)
돌	유두를 대어주어도 빨지 않는다.			30	(11)
입	혀로 유두를 핥는다.			65	(25)
돌	유두를 대어주면 즉시 빨다.			172	(64)
입	계			267	(100)
유	유두를 계속 입에 물고 있음			43	(20)
두	유두를 입에 물지 못함			54	(26)
합	유두를 입에 물었다가 빠뜨림			113	(54)
입	계			210	(100)
흡	빨기를 계속한다.			127	(32)
혈	빨기 중간에 쉰다.			275	(68)
계	계			402	(100)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표2-3 참조).

ㄷ. 상호작용 유도행동

어머니의 반응을 유발시키도록 하는 자극과 반응행동으로, 응시, 표정, 발성,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작용 유도행동의 총 행동빈도는 385회로 그중에 사지행동이 148회(38%)로 가장 많았고, 응시가 146회(38%), 표정이 67회(17%), 발성은 24회(5%)로 나타났다.

1) 응 시

〈표2-4〉 수유시 영아의 응시 행동

	응 시	회	(%)
대 상	주위의 인물이나 사물	3	(2)
	어머니의 눈	12	(8)
	어머니의 유방	13	(9)
	어머니의 얼굴	118	(81)
계		146	(100)
양 식	방향이 변화된다.	49	(45)
	한 방향을 계속 응시한다.	59	(55)
계		108	(100)

2) 표 정

영아가 보여준 얼굴표정으로 쟁그림의 표정을 보여준 경우는 61회(91%)였고, 6회(9%)의 미소 표정을 보여주었는데 기본적으로 무표정의 얼굴표정에서 변화의 표

총 146회의 응시행동이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얼굴을 향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118회(81%)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유방을 향했던 경우는 13회(9%), 뚜렷이 어머니의 눈에 시선을 고정시켰던 경우가 12회(8%)였고, 주위의 인물이나 사물을 보는 경우는 3회(2%)로 나타났는데 응시 양식은 방향이 변화되는 예가 49회(45%), 한 방향을 계속 응시하는 예가 59회(55%)로 나타났다(표2-4 참조).

〈표2-5〉 수유시 영아의 표정

	표 정	회	(%)
얼 굴	미 소	6	(9)
	쟁 그림	61	(91)
	계	67	(100)

3) 발 성

총 24회의 발성이 발견되었는데 짧은 발성이 16회(67%), 긴 발성이 8회(33%)로 나타났다. 대개 발성후

정을 보여준 행동 빈도였고, 미소 4회는 수면상태에서 보여준 행동이며, 1회는 각성상태에서 보여 주었다(표2-5 참조).

〈표2-6〉 수유시 영아의 발성 행동

	발 성	회	(%)
음 률 적	짧은 발성	8	(33)
	긴 발성	16	(67)
계		24	(100)

4) 동 작

수유시 영아가 보여준 동작으로, 사지운동이 활발한

연결되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울음이나 쟁그림의 얼굴표정이었고, 울음이나 흡침동작과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표2-6 참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다리운동이 가장 활발하여 76회(51%)의 빈도를 보여 주었고, 팔의 운동이 활발

한 경우는 55회(37%), 팔과 다리가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17회(12%)였다. 이러한 사지동작이 나타나는 상황적 맥락을 보면, 영아가 울고 있을 때 혹은

흡允과정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빨기 직전에, 그리고 유두탐색 과정에서 나타났다(표2-7 참조).

〈표2-7〉 수유시 영아의 동작

	동작	회	(%)
사지	팔, 다리운동이 활발함	17	(12)
	팔운동이 활발함	55	(37)
	다리운동이 활발함	76	(51)
	계	148	(100)

다. 모-아의 양각적 행동

모아가 동시에 보여주는 동시성 상호작용 행동으로 나타났다.

ㄱ. 동시성 상호작용 행동

동시성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행동은 피부접촉, 시각적 접촉과 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피부접촉

모아가 신체적으로 밀착된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 밀착거리와 영아의 손이 어머니의 가슴과 밀착된 거리로서 접촉상태를 나타냈다.

애기의 얼굴만 어머니의 신체에 밀착된 경우는 31회(61%)로 가슴이하의 부분은 어머니의 신체에서 분리되어 있고, 애기의 얼굴에서 복부까지 어머니의 신체에 밀착된 경우는 14회(27%)로 이 경우는 완전 밀착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얼굴과 가슴부분만 어머니의 신체에 밀착된 경우는 6회(12%)였다.

영아의 손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져 멀리 있는 경우는 47회(68%)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22회(32%)로 나타났다(표3-1 참조).

〈표3-1〉 수유시 모아의 피부접촉

	피부접촉	회	(%)
신체	애기의 얼굴과 가슴부분이 어머니의 신체에 밀착됨	6	(12)
밀착	애기의 얼굴에서 복부까지 어머니의 신체에 밀착됨	14	(27)
거리	애기의 얼굴만 어머니의 신체에 밀착됨	31	(61)
	계	51	(100)
영아의	어머니의 가슴에 가까이 있다.	22	(32)
손위치	어머니의 가슴에서 멀리 있다.	47	(68)
	계	69	(100)

2) 시각적 접촉

모아가 응시선 상에서 시각적 접촉이 있는 행동으로 총 5회의 시각적 접촉이 5쌍의 모아에게서 나타났다. 또한 시각적 접촉양식으로 상호 응시선 상에서 10초 이상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는 3쌍의 모아에게 각 1회씩 있었고 5초 이상인 경우는 2쌍의 모아에게 각 1회씩 있었

다(표3-2 참조).

3) 표정

모아 상호 동시성 표정으로 표정은 2쌍의 모아에게서 나타났는데 각성과 즐음상태인 영아에게서 각각 한 명씩 미소의 얼굴표정이 있었고, 동시에 어머니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미소를 보였다.

〈표3-2〉 수유시 모아의 시각적 행동

	시간적 접촉	회
양식	5초 이상 모아상호 응시선상에 시각을 고정시킴	2
	10초 이상 모아상호 응시선상에 시각을 고정시킴	3
	계	5

2. 하문화적 특성에 따른 영아 초기 수유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비교

가. 준비 활동

ㄱ. 준비활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지역간 어머니의 분포비교

준비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 지역간 어머니의 분포로서 신체적 준비활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 지역간 어머니의 분포로서 신체적 준비행동으로 유방의 조건을 나

타내는 행동이나 심리적 준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에서는 벽지와 도시간 어머니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 준비를 나타내는 동작은 벽지와 도시간 어머니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df=2, \chi^2=7.8896 P<0.02$) 세가지 동작중 벽지의 어머니들은 유방을 닦고 맛사지를 하는 동작을 하는 어머니가 가장 많은 반면 도시의 어머니들은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어머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1 참조)。

〈표4-1〉 준비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지역간 어머니의 분포 비교

	벽지	도시	계	df	χ^2	P-Value
	%(%명)	%(%명)	%(%명)			
신체적 조건, 유방						
수유시키기 위해 아기를 양팔로 들어야 한다.	24(6)	44(11)	68(17)	1	0.0459	N · S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들어야 수유가 가능하다.	12(3)	20(5)	32(8)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들지 않아도 수유가 가능하다.	36(9)	64(16)	100(25)			
계	36(9)	64(16)	100(25)			
심리적 준비, 언어적 표현						
말없이 수동적으로 응한다.	4(1)	8(2)	12(3)	2	1.1243	N · S
수유시키기를 기대하는 말을 한다.	8(2)	20(5)	28(7)			
수유시킬 수 있을지를 의심스러워 한다.	24(6)	36(9)	60(15)			
계	36(9)	64(16)	100(25)			
신체적 준비, 동작						
유방 내어놓기를 주저한다.	4(1)	12(3)	16(4)	2	7.8896	p<0.02
동작 없음	8(2)	28(7)	36(9)			
유방을 닦고 맛사지를 한다.	24(6)	24(6)	48(12)			
계	36(9)	64(16)	100(25)			

N · S=Not Significant

ㄴ. 준비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분포비교

준비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행동분포는 신체적 준비행동으로 유방의 조건을 나타내는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산모의 유방조건이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반처야 수유가 가능한 경우가 팔꿈치를 받치지 않고 수유가 가능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df=1, \chi^2=9.9263, P<0.01$)。

심리적 준비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은 경산모와 초산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으나, 심리적 준비를 나타내는 동작에서는 경산모와 초산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df=1, \chi^2=12.8540 P<0.001$) 경산모에서는 유방을 닦고 맛사지를 하는 어머니가 많은 반면 초산모에서는 유방 내어 놓기를 주저하거나 아무 동작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표4-2 참조)。

〈표4-2〉 준비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분포 비교

	경산	초산	계	df	χ^2	P-Value
	%(%명)	%(%명)	%(%명)			
신체적 조건, 유방						
수유시키기 위해 아기를 양팔로 들어야 한다.	20(5)	48(12)	68(17)	1	9.9263	p<0.01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들어야 수유가 가능하다.	20(5)	12(3)	32(8)			
수유시키는 쪽의 팔꿈치를 들지 않아도 수유가 가능하다.	40(10)	60(15)	100(25)			
계	40(10)	60(15)	100(25)			
심리적 준비, 언어적 표현						
말없이 수동적으로 응한다.	4(1)	8(2)	12(3)	2	4.7619	N · S
수유시키기를 기대하는 말을 한다.	16(4)	12(3)	28(7)			
수유시킬 수 있을지를 의심스러워 한다.	20(5)	40(10)	60(15)			
계	40(10)	60(15)	100(25)			

심리적 준비, 동작						
유방 내어놓기를 주저한다.	12(3)	40(10)	52(13)	1	12.8540	p<0.001
동작 없음						
유방을 닦고 맛사지를 한다.	28(7)	20(5)	48(12)			
계	40(10)	60(15)	100(25)			

N · S=Not Significant

나. 도구적 행동

ㄱ. 도구적 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 지역간 어머니의 평균 행동빈도 비교

도구적 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 지역간 어머니의 평균 행동빈도는 수유자세로 얼굴의 방향이나 팔동작에서는 벽지와 도시간 어머니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으나 다리 동작에서 벽지의 어머니들은 두 무릎을 끊거나 두 다리를 양 옆으로 구부리고 앉는 동작이 많

은 반면 도시의 어머니들은 한쪽 무릎을 위로 세우고 앉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주어 다리 동작에서는 벽지와 도시의 어머니들 사이에 행동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df=3, \chi^2=20.1258, P<0.001$).

또한 수유 유도 동작에서는 벽지와 도시의 어머니들 사이의 행동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표 4-3 참조).

〈표4-3〉 도구적 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지역간 어머니의 평균 행동 빈도 비교

	벽지	도시	계	df	χ^2	P-Value
자세, 얼굴의 방향	% (회)	% (회)	% (회)	-		
애기의 물품에 향해 있다.	17(2.22)	11(1.44)	28(3.77)	1	1.7857	N · S
주위 사람에게 향해 있다.						
애기 얼굴에 향해 있다.	33(14.33)	39(5.13)	72(9.46)			
계	50(6.66)	50(6.57)	100(12.23)			
자세, 팔 동작						
한 손바닥으로 애기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애기의 둔부를 받쳐준다.	7(0.56)	4(0.31)	11(0.87)	3	0.4656	N · S
한 손바닥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쳐서 수유시킨다.	8(0.67)	8(0.5)	14(1.17)			
두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한다.	19(1.56)	16(1.31)	35(2.87)			
한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한다.	21(1.78)	19(1.62)	40(4.40)			
계	55(4.57)	45(3.74)	100(8.31)			
자세, 다리동작						
두 다리를 앞으로 나란히 뻗고 앉는다.	6(0.33)	7(0.38)	13(0.71)	3	20.1258	p<0.001
두 무릎을 끊고 앉는다.	22(1.22)	5(0.31)	27(1.53)			
한쪽 무릎을 위로 세우고 앉는다.	4(0.22)	18(1)	22(1.22)			
두 다리를 양 옆으로 구부리고 앉는다.	22(1.22)	16(0.88)	38(2.1)			
계	54(2.99)	46(2.57)	100(5.56)			
수유 유도 동작						
손바닥으로 유방을 쥐고 짜준다.	9(2)	6(1.56)	15(3.56)	3	1.9640	N · S
손바닥으로 유방을 누름	6(1.56)	8(1.88)	14(3.44)			
손가락으로 유두를 쥐고 애기 입에 넣어준다.	13(3.11)	12(2.81)	25(5.92)			
유방을 애기 입에 가까이 갖다 댄다.	19(4.56)	27(6.56)	46(11.12)			
계	47(11.23)	53(12.81)	100(24.04)			

N · S=Not Significant

ㄴ. 도구적 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평균 행동 빈도 비교

도구적 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평균 행동빈도는 수유 자세로서 얼굴의 방향이나 팔동작에서는 경

산모와 초산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으나 다리 동작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df=3, \chi^2=11.7757, P<0.01$), 경산모에서는 두 무릎을 끓고 앉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초산모에서는 두 다리

를 양옆으로 구부리고 앉는 동작을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냈다.

또한 수유 유도 동작은 경산모와 초산모의 행동 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표4-4 참조).

〈표4-4〉 도구적 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평균 행동 빈도 비교

	경산모 %(회)	초산모 %(회)	계 %(회)	df	χ^2	P-Value
자세, 얼굴의 방향						
애기의 물품에 향해 있다.	10(1.3)	16(2.06)	26(3.36)	1	0.0935	N · S
주위 사람에게 향해 있다.	31(3.9)	43(5.47)	74(9.37)			
애기 얼굴에 향해 있다.						
계	41(3.9)	59(7.53)	100(12.73)			
자세, 팔 동작						
한 손바닥으로 애기의 머리를 밟치고, 다른 손으로 애기의 둔부를 밟쳐준다.	3(0.2)	7(0.53)	10(0.73)	3	3.3549	N · S
한 손바닥으로 아기의 머리를 밟쳐서 수유시킨다.	4(0.3)	9(0.73)	13(1.03)			
두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한다.	12(0.9)	22(1.73)	34(2.63)			
한팔로 애기의 머리, 등, 둔부를 지지한다.	22(1.7)	21(1.67)	43(3.37)			
계	41(2.1)	59(4.66)	100(7.76)			
자세, 다리동작						
두 다리를 앞으로 나란히 뻗고 앉는다.	4(0.2)	9(0.47)	13(0.67)	3	11.7757	$p<0.01$
두 무릎을 끓고 앉는다.	17(0.9)	9(0.47)	26(1.37)			
한쪽 무릎을 위로 세우고 앉는다.	4(0.2)	21(1.07)	25(1.27)			
두 다리를 양 옆으로 구부리고 앉는다.	12(0.6)	24(1.27)	36(1.87)			
계	37(1.9)	63(3.28)	100(5.18)			
수유 유도 동작						
손바닥으로 유방을 쥐고 짜준다.	10(2.3)	6(1.33)	16(3.63)	3	7.1378	N · S
손바닥으로 유방을 누름	8(1.9)	7(1.67)	15(3.57)			
손가락으로 유두를 쥐고 애기 입에 넣어준다.	7(1.8)	16(3.67)	23(5.47)			
유방을 애기 입에 가까이 갖다 댄다.	14(3.2)	32(7.6)	46(10. 8)			
계	39(9.2)	61(14.27)	100(23.47)			

N · S=Not Significant

다. 상호작용 유도행동

ㄱ. 상호작용 유도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 지역간 어머니의 평균 행동빈도 비교

상호행동 유도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 지역간 어머니의 평균 행동빈도 비교

니의 평균 행동빈도는 접촉, 응시, 표정, 발성으로 구성된 상호작용 유도행동의 빈도에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표4-5 참조).

〈표4-5〉 상호작용 유도행동에 대한 벽지와 도시지역간 어머니의 평균 행동 빈도 비교

벽지	도시	계	df	χ^2	P-Value	
	%(회)	%(회)				
접촉	6(3.78)	6(3.35)	12(7.13)	3	0.5947	N · S
응시	9(5.44)	13(7.94)	22(13.38)			
표정	5(2.78)	8(4.94)	13(7.72)			
발성	25(14.78)	28(16.82)	53(31. 6)			
Total	45(26.78)	55(33.05)	100(59.83)			

ㄴ. 상호작용 유도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평균 행동빈도는 접촉, 응시, 표정, 발성으로 구성된 유도

행동에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
(표4-6 참조).

〈표4-6〉 상호작용 유도행동에 대한 경산모와 초산모의 평균 행동 빈도 비교

벽 지	도 시	계	df	χ^2	P-Value
	% (회)	% (회)			
접 촉	5(3)	7(4.07)	12(7.07)	3	3.7220
응 시	5(3)	17(9.73)	22(12.73)		N · S
표 정	3(1.4)	10(6)	13(7.4)		
발 성	18(10.1)	35(20.07)	53(30.17)		
Total	31(17.5)	69(39.87)	100(57.37)		

3. 한국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

영아에 대한 신념으로서 25명의 어머니중 3명을 제외한 22명의 어머니들은 영아를 사회적 능력을 가진 인간 개체로서 보다는 감각기능은 있는 하나의 생물체로서 사회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20일내지 백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중 환경에 대한 신념속에서 태아와 비교해 볼 때, 갖 출생한 영아에 대한 기대나 고려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반면에 영아가 어머니 혹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가문의 친족내지는 사회에 까지 확대해서 갖는 기능적인 측면은 영향력이 크고,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한 만한 사실은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영아에 대해 “나의 애기”라는 호칭보다는 “우리 애기”라고 불러 개인보다는 가족, 혹은 가문집단의 견지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에 대한 신념은 기능적 가치 측면으로 범주화 할수 있었는데 결혼의 완성, 결속 그리고 친족간 조화조정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가. 결혼의 완성

건강한 애기의 출생은 완전한 결혼을 성립시켜 준다. 더우기 남아의 출생은, 어머니는 아내로서, 머느리로서, 친족간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성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결혼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지지해줄 수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 유산하고 1년 반 만에 애기를 낳았는데, 그동안 애기 못낳을까봐 노력을 많이 했죠. 애기가 없으면 남편하고도 못 살까봐... 처음엔 딸이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시집에선 이왕이면 아들 낳았더라면...하고 서운해”하세요” “결혼후 임신이 되니 기뻤어요. 딸 낳았다고 모든

친척들이 기뻐해 주니 기쁘고, 기금 굉장히 행복해요”
“결혼 전에 임신이 되어 안 낳으려고 하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낳으라고 하여 낳았어요. 친정에선 반대했지만 첫 아들 낳고 결혼했어요”

“애기 낳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들 낳았다고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시집으로 와라 해서 할수 없이 여기로 왔는데 시어머님이 산후 조리를 해주세요” “결혼 전 임신 되었는데 남편 집에서 낳으라고 하여 그냥 살면서 낳았어요” “결혼후 1년까지 애기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이혼시키려 했어요. 더군다나 아빠가 삼대 독자이거든요. 삼대독자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복덩이예요” “애기 못 낳으면 쫓겨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영아의 분만은 영아의 어머니라는 위치보다는 아내, 머느리 그리고 친족 구성원으로서 영역을 확대시켜 결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결속

영아의 분만은 부부 뿐만 아니라 친족 구성원들 간에 횡적, 혹은 종족인 강한 정서적 밀착성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남편과의 사이에 얘기는 끈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각자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직장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사는데 얘기가 합쳐 주게 하는 것 같아요”로서 부부간의 유대감에 대하여 표현했다. 또 “애기 낳고 난 후 일주일도 못 되어 시어머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애기 낳았다고 전화했더니 시댁에서도 좋아하셨어요” “애기 낳기 전 까지만 해도 시집살이가 몹시 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잘 못먹었는데,

아들 놓고 나서 달라졌어요”

“얘기는 부부간의 떠인 것 같아요, 옛날 얘기 못 놓으면 쫓겨나는 거에 비하면….”

친족 구성원간의 결속상태는 어머니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주위에서 시중들어 주는 친족들의 행동, 태도, 분위기의 친근감, 혹은 대화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도 표현되었다.

다. 친족간 조화 조정

영아의 성은 그의 부모 뿐만 아니라 친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재구성시키며 정서적 조화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놓고 나서 아빠에게 제일 먼저 알렸어요. 남편이 세째인데도 아들에 대한 바램이 많았어요. 그리고 딸만 낳아서 죄스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가 많은데도, 첫애니까 아들이었으면 하고 바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손자 바라셨어요. 아빠가 독자 이거든요. 또 딸이면 어찌나 하고 걱정했어요.”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 자신과 친족간의 관계에서 아들에 대한 열망은 한결 같았으나 이런 반응도 있었다. “저의 큰 동서가 얼마전에 아들을 낳기 전만 해도 아들을 낳는 것이 거북했을 거예요. 큰 동서가 딸만 들이고 둘째 동서는 딸이 하나거든요. 저희가 세째니까 책임은 없었지만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큰 동서댁에 좀 그렇고….”

이렇게 영아의 성은 친족 구성원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조화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표현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친족간 자녀의 성비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던 것은 이러한 정서적 조화에 대한 반응의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조화도 고려하고 있음을,

“결혼후 즉시 임신하려 했어요. 남편이 외아들이고 시부모 연세도 높으니….”라는 말로써 나타나고 있다.

V. 논 의

모아 상호작용 행동 관찰에서 나온 결과는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모아 상호작용의 행동형태와 비슷하다. 그러나 문헌상 모아 상호작용의 영향 요인으로 어

머니 유방의 물리적 조건에 대하여 고려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관찰자료에서 나온 결과는 영아에게 수유시키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유방의 크기는 자연히 어머니의 자세와 나아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유방의 크기는 수유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심리적 준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수유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하는 어머니의 대부분이 “젖이 작아서 모유가 충분할지 모르겠다.”라고 어머니 자신이나 혹은 주위에서 말하는 것으로 유방의 조건이 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준비에 중요한 영향요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모유 수유 실패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모유 영양의 산전 교육을 통하여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은 매우 주요하다고 본다.

심리적 준비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유방을 내어 놓기를 주저하는 초산모도 네명이 있었는데 모성 정체감 형성의 결여로 인하여 나타난 행동이 아닌가 보여진다. Rubin(1977)에 의하면 임신 제3기에서 분만후 제2기까지 모성의 정체감이나 모아 결속은 점진적으로 발달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은 영아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도구적 행동으로서 어머니의 얼굴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아의 얼굴에 고정시키고 있었고, 반면 영아도 수유과 정동안 나타낸 응시 행동에서 그 대상이 어머니의 얼굴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Stern(1977)은 수유시 영아의 어머니는 전 기간의 70%를 애기의 얼굴에 향하게 됨에 따라 영아는 자연 그의 어머니의 얼굴, 특히 눈을 보게 될 것이므로 영아가 첫번째로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모체의 유방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종래의 학설들을 부정했던 그의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으나 한편 영아가 어머니의 유방을 응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 빈도이기는 하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아의 첫번째 응시대상은 어머니의 유방조건과 그로 인한 어머니의 자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머니가 대부분의 수유시간 동안 그의 얼굴을 영아의 얼굴에 향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그의 영아와 시각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는 5명에게서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응시행동을 인식하지 못한채로 모아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영아의 행동 반응에 대하여 수유현

장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인식시킴으로서 적절한 근접성(contingency) 행동을 보여줄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Stern(1977)은 영아가 지닌 특정한 형상에 대한 생득적인 편애 현상때문에 영아는 출생하자 마자 그가 좋아하는 인간의 얼굴을 발견하려 하고, 그의 어머니는 이미 그를 매혹시킬 만큼 흥미 있는 얼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관찰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영아의 뚜렷한 응시 행동과 또한 간혹 보여준 탐색적 응시 반응들은 간과될수가 없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유발시키는 자극행동이나 반응하는 행동 유형은 문헌에서의 보고와 유사하나 그중 발성으로 표현되는 행동형태가 영아의 어머니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이와 김(1981)의 연구에서 분만후 어머니의 애착행동으로 언어적 접촉은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결과와는 상이하였으나 최근에 심(1984)의 연구 보고에서 언어적 접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던 결과와는 일치되는 것이었다. 본연구에서 나타난 언어적 접촉의 종류인 발성행동은 짧은 발성이나 변형음, 매우 짧은 문장의 형태로 근접성(Contingency)의 긍정적인 발성이 주된 표현이었으며, 말의 억양면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상냥하고 선율적인 표현이 많으나 사무적이거나 무뚝뚝한 경우도 적지 않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이 그 특성으로 지적될수 있고, 발성의 유발대상은 영아의 행동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동일시감 발달의 한 표현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Rubin(1977)은 모아 결속관계의 발달 진행과정 중 초기 단계인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동일시감 발달과정에서는 영아의 행동을 포함하여 신체기능을 확인하는 행동을 어머니에게서 볼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접촉행동은 본 연구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 행동양식이다. Rubin(1983)이 말했던 모아관계의 시작인 접촉행동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영아의 뺨을 만지는 동작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뺨이나 입을 이용한 입맞춤의 동작은 거의 없이 매우 희귀한 반응이었는데 모아 상호작용 행동으로 입맞춤의 동작을 외국의 문헌(Anant, 1982; Belsky 1984; Dunbar 1977; Price, 1983; Walker, 1982)에서는 많은 빈도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때 한국적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Dunbar(1977)는 이러한 접촉행동에 의해 영아는 사랑을 배우고 자신감 및 신뢰감이 발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말의 홍수속에서 사는 서구 유럽인보다 24시간동안

그의 어머니와 접촉하면서 사는 아프리카인 영아가 1~2개월 먼저 정서적으로 발달된다고 하는 문헌상의 보고도 있다(Bloch, 1981). 접촉의 양식으로 가장 많이 보여 준 토닥거림은 영아의 수유를 촉진시키는 상호작용 행동으로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아의 행동반응에서는 그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친밀성을 보여주는 행동보다는 수유를 위한 도구적 행동이 많았다. 특히 유두탐색과 들입, 유두합입 그리고 흡첨의 수유 행동양상은 각각의 영아가 다양한 행동목록을 독특한 조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 얼굴표정은 단순하기는 해도 쟁그림이나 미소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하문화 간의 특성에 따라 영아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수유시 상호작용 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리, 단위의 벽지와 도시 지역간 어머니들의 행동 그리고 경산모와 초산모 사이의 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준비행동에서 심리적 준비를 나타낸 동작과 도구적 행동의 차세를 나타낸 다리 동작에서 두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고 상호작용 유도행동에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벽지와 도시 지역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경산모와 초산모의 특성 때문인지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구의 방법상 인위적으로 대상자를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벽지의 어머니 9명 중에는 경산모 10명 중 7명이 포함되어 있어 모아 상호작용 행동과 제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여러번 재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준비행동의 유방조건을 나타내는 행동은 경산모와 초산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산모에서는 경산모보다 수유시키기에 불편한 유방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음을 암시했고, 또한 나타난 준비동작에서도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훨씬 수유에 대한 소극적 행동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유방조건을 나타내는 신체적 준비가 수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유에 대한 초산모의 산전 심리적 준비가 절실히 요망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면 영아에 대하여 지각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기능적 가치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아자신의 개인보다는 가족 혹은 가문 집단의 견지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영아의 가치가 어머니 혹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친족 내지 사회적 영역에 까지 확대되는 기능적 측면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문(1973)의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육

↑관행에 대한 연구보고에서 영아의 출생에 있어 우리 관심은 어린이에게 보다는 그 부모에게 쏠려지기 마련이라는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결혼의 완성이나 결속 그리고 친족간 조화조정이라는 영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개념은 문(1973), 이(1974)의 우리나라의 자녀관이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근본사상을 지지해 주고 있으며 특히 문(1973)의, 아들의 출생은 그의 모친의 가족내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 출뿐 아니라 그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고 있어 사회학적인 의의가 크다고 했던 보고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기능적 가치는 매우 크게 보여지고 있으나 잣 출생한 영아에 대한 기대나 고려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능력을 가진 인간 개체로서 보다는 갑작기능을 갖춘 하나의 생물체로서, 사회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출생후 20일 내지 백일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영아가 출생후의 환경에 의해서 인격체로서 성장해 간다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아 초기에 어머니는 영아에 대한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김(1974)이 한국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지적했듯이 초기 영아는 그의 어머니에게 강하게 부속되어 있으면서 어머니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독특한 영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영아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영아의 어머니는 실제로 그들의 영아가 사회적 반응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

반면 영아는 그들의 생득적인 지각 능력에 따라 어머니의 자극행동에 반응하고 응시, 표정, 발성, 그리고 사지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그들의 영아는 각각 분리된 일련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보여주며 그런 과정속에서 어머니의 지각 능력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유도되고 모아 동시성 상호작용이 증가됨과 동시에 행동목록 및 양상은 다양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결과의 진술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행동인 모아 상호작용 행동을 단면적으로만 묘사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각 행동의 유형별로 세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이론 개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초보적 단계인 질적 연구가 시도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비록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현상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근거 자료의 기초 없이는

이론의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 개발의 근거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온 개념들은 소 범주체별로 재 검토되어 통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점차 정교화되어 이론화될 것이다. 또한 각 개념들은 재 검토되기 위한 사정도구로서 개발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문화적 신념에 근거한 타당성 있는 사정도구를 간호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는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자료를 지식의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신념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간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문제는 분만후 초기의 모아에게서 한국인의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 형태를 발견하고 영아의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문화적 신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자료수집은 자연 분만하여 모유 수유를 계획하는 25쌍의 모아를 대상으로 하여 관찰과 면담으로 시행되었다. 분만후 1~5일 이내의 모아가 있는 벽지를 포함한 대, 중, 소도시 12개 지역에서 병원 조산소, 모자보건센터 그리고 가정에서 분만한 모아를 방문하여 병원 혹은 가정환경에서 자료수집하였다.

관찰된 자료는 예비조사 결과 개발한 관찰자료 기록지에 상정적 부호로 기록 하였으며 면담자료는 녹음하여 회화체로 환원 기록 하였다.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에서는 영아의 어머니, 영아 그리고 모-아의 세 가지 분석단위에 따라 영아의 어머니에게서, 준비행동, 도구적 행동, 상호작용 유도행동, 종결행동, 영아에게서, 준비행동, 도구적 행동, 상호작용 유도행동 그리고 모아의 동시성 상호작용 행동의 8가지 분석적 범주와 각 분석적 범주는 소체계로 나누어 총 19가지의 소 범주와 각 구성요소를 분류할 수 있었다.

자료는 각 범주에 따른 구성요소별 행동빈도를 나타내는 백분율로 환원하여 그 결과 영아 어머니의 준비 행동중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유방 조건은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 유도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행

동은 발성 행동이며, 가장 적은 빈도를 보여 준 것이 접촉 행동이었다.

하문화간 특성에 따른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벼지와 도시 지역, 경산모와 초산모 사이의 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준비행동에서 심리적 준비를 나타낸 동작과 도구적 행동의 자세를 나타낸 다리 동작에서 두 그룹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상호작용 유도행동에서는 모두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산모에 비해 수유시키기에 불편한 유방조건을 갖춘 초산모가 훨씬 많았으며 수유의 준비행동에는 소극적 행동을 초산모가 많이 보여 주어 초산모의 수유에 대한 산전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영아에 대하여 지각된 어머니의 문화적 신념은 영아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영아의 부모, 내지 친족과 사회적 영역의 기능적 가치 측면으로 확대되어 결혼의 완성, 결속, 친족간 조화조정의 개념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영아는 사회적 능력을 가진 한 인격체이기 보다는 어머니에게 부속된 단순히 지각하는 생물체로서 어머니 자신의 사회적 영역 확보와 확대의 기여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부각되고 있다.

영아의 어머니가 가진 이러한 신념은 어머니가 그들의 영아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영아가 사회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기대하지 않으면서, 독립된 일련을 행동을 하게 한다. 영아 또한 그들의 생득적 지각 능력에 따라서 어머니의 행동에 독립적으로 반응하고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상호 독립적인 일련의 모-아의 행동들은 영아 초기의 모아 상호작용 행동들로서 나열되어 상호 동시성 행동의 증가에 따라 행동 목록들은 다양화되고 안정돼 갈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분야에서 초기 모아의 상호작용을 사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간호교육 현장에서 현실감 있는 정보의 자원이 되며, 간호이론 정립의 기초적인 질적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혈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인 현상학적 접근으로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연구방법의 새로운 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제 언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질적 자료를 근거로 계속 연구

하여 한국인의 모아 상호작용을 사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도구의 개발과 임상 영역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실제 형태의 간호이론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하문화 체계별 모아 상호작용의 행동 형태에 대하여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어머니의 유방 조건에 따른 모아 상호작용의 행동 형태에 대하여 연구한다면 흥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 방법론-조사방법과 계량 분석, 박영사, 1984.
- 김재은, 한국 가족의 심리, 시인사, 1974.
- 김태곤, 한국 민속학 원론, 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편, 시인사, 1984.
- 문승규, 한국 농촌에 있어서의 육아관행, 한국연구총서,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심미정, 문만 제3기 및 4기동안 한국문화적 모아 애착행위, 대한간호, 1984, 23(3), 77-84.
- William c.c. 저, 발달의 이론, 서봉연 역, 인간발달복지 연구소 씨리즈 3, 중앙적성출판부, 1980, 1983.
- 이영, 한국인의 전통적인 육아법에 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이자형, 김진향,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1, 11(2), 9-19.
- 유안진,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정인사, 1980.
- 한경자, 박영숙, 산전 Lamaze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아모의 태도와 모아상호 작용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1985, 15(2), 16-24.
- 한경자, Choi, E.X.C., Influences of Explanation of Infant's Behavior and Eliciting Infant's Social Response on Mother-Infant Interaction,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986, 1(1), 3-12.
- 한상복,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인류학적 접근, 심설당, 1982.
- Anderson, C.J., Enhancing Reciprocity between Mother and Neonate, Nursing Research, 1981, 30(2), 89-93.
- Avant, P.A., A Maternal Attachment Assessment Strategy, in S.S., Humenick (Ed.), Analysis of Current Assessment Strategies in the Health Care of

- Young Children and Childbearing Families, 1982, 171-178.
- Belsky, J., Gilstrap, B. and Rovine, M.,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1 : Stability and Change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1984, 55, 692-705.
- Belsky, J., Rovine, M. and Taylor D.C., The Pennsylvania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Mother Attachment :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1984, 55, 718-728.
- Berry, J.W., Ec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in Spatial Perceptual Development, in H.M. Proshansky, W.H. Ittelson, L.G. Rivlin(Ed.), *Environmental Psychology, People and Their Physical Settings*(2n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 Bigner, J.J.,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2n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London :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1985.
- Bloch, M., Machecourt, A. and Spetebroot, J. *L'enfant - L'adolescent, Aspects Psycho-Sociaux et Juridiques*, Paris : Foucher, 1981.
- Bower, T.G.R., *Development in Infancy*(2nd ed.),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1982.
- Bowlby, J.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11nd ed.). Pelican Books, 1983.
- Brazelton T.B., *Infants and Mothers : Differences in Development*(revised ed.), A. Merloyd Lawrence Book, Delta / Seymour Lawrence.
- Caldwell, B.M., What is Optimal Learning Environment for the Young Child? in E.B. McNeil(ed.), *Readings in Human Socialization*, Books, Cole Publishing Co., Belmont, California : A Division of Wadsworth Publishing Co., Inc., 1971.
- Choi, E.S.C., Hamilton, K. Roxanne, *The Effects of Culture on Mother-Infant Interaction*, 1984, (Presented at the Sigma Theta Tau Conference) in Seoul, Korea.
- Choi, E.S.C., *Unique Aspects of Korean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4.
- Coates D.L., M.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Cognitive Status as Predictors of School Performance and Behavior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1984, 55, 1219-1230.
- Curry, M.A., Maternal Attachment Behavior and the Mother's self-Concept : The Effect of Early Skin-to-Skin Contact, *Nursing Research*, 1982, 31(2), 73-78.
- Dixon, S.D., Levine, R.A. Richman, A. and Brazelton, T.B., Mother-Child Interaction Around a Teaching Task : An African-American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1984, 55, 1252-1264.
- Dunbar, J., Maternal Contact Behaviors with Newborn Infants during Feedig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77, 6(4), Monograph.
- Egeland, B and Farber, E.A., Infant-Mother Attachment : Factors Related to 1st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1984, 55, 753-771.
- Fishbein, A.,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Menlo Park, California, London, Amsterdam, Don Mills, Ontario, Sydney :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1975.
- Hill, V., The Importance of Caregiver-Infant Interaction, in Barnard, E.K.(Ed.),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Instructor's Manual*, 1980, 75-79.
- Jeremy, R.J. and Bernstein, V.J., Dyads at Risk : Methadonmaintained Women and Their Four-Month-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1984, 55, 1141-1154.
- Jessop, L.C., Promoting Maternal Attachment Through Prenatal Interventio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1981, 6(2), 107-112.
- Kennedy, J.C., The High Risk Maternal-Infant Aquaintance Process, *Nursing Clinics of North*

- America*, 1973, 7, 549–556.
- Klaus, M. and Kennell, J., Human Maternal Behavior at the First Contact with Her Young, *Pediatrics*, 1970, 46(2), 187–192.
- Klaus, M. and Kennell, J. et al, Maternal Attachments : Importance of the First Post – Partum Days, *Journal of Medicine*, New England, 1972, 286, 460–463.
- Klaus, M.H.M. and Kennell J.H., *Parent – Infant Bonding*(11nd Ed.). Toronto, London : The C.V. mosby Co., St. Louis, 1982.
- Knafl, K.A. and Howard, M.H., Interpreting and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984, 7, 17–24.
- Lienhardt, G., *Sociak anthropologg*(11nd Ed.). London,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93–113.
- Kruger, S. and Maetzold, L.D., Practices of Tradition for Pregnancy,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1983, 12(2), 135–139.
- Leininger, M., Transcultural Nursing : An Overview, *Nursing Outlook*, 1984, 32(2), 72–73.
- Leininger, M., *Transcultural Nursing :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New York, Chichester, Brisbane, Toronto : A wiley medical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Lester B.M., Hoffman, J. and Brazelton, T.B., The Rhythmic Structure of Mother – Infant Interaction in Term and Pre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1985, 56, 15–27.
- Lewis, M. and Goldberg, S., Perceptual – Cognitive Development in Infancy : A Generalized Expectancy Model as a Function of the Mother – Infant Interaction, *Annual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and Development*, Brunner /Mazel Inc. 1970, 26–46.
- Lipkin, G.B., *Parent – Child Nursing, Psychosocial Aspects*(11nd Ed.), Saint Louis : The C.V. Mosby Co., 1978.
- Maccoby, E.E.,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1984, 55, 317–328.
- McNeil E.B.,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McNeil E.B.(Ed.), *Readings in Human Soc-*
ialization, Brooks, Cole Publishing Co. Belmont California, A Division of Wadsworth Publishing Co., Inc., 1971, 9–16.
- Moss, H., Sex, Age, and State as Determinants of Mother – Infant Interaction, *Annual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and Development*, Brunner /Mazel Inc., 1968, 73–91.
- O'Connor, S., Vietze, P.M., Sherrod, K.B., Sandler, H.M., Sandler, H.M. and Altemier, W.A., Reduced Incidence of Parenting Inadequacy Following Room – in, *Pediatrics*, 1980, 66, 176–182.
- Oiler, C.,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1982, 31(3), 178–181.
- Ormery, A., Phenomenology :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3, 49–63.
- Orque, M.S., Bloch, B. and Monrroy, L.S.A. *Ethnic Nursing Care, A Multicultural Approach*, St. Louis Toronto, London : The C.V. Mosby Co., 1983. 8–53.
- Peterson G.H. and hehl L.E., Some D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8, 135, 1168–1173.
- Phillips, J.R., Nursing Systems and Nursing Models, Imag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77, 9(1), 4–7.
- Porter, R.H., Cernoch, J.M. and Perry, S., The Importance of Failure to Thrive – A Retrospective Profile, *Clinical Pediatrics*, 1968, 7, 255–261.
- Smart, M.S. and Smart, R.C., *Children : Developmental Relationships*, 3rd Ed.,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Inc.,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London, 1977, 148–155.
- Sroufe, S.A.,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 – 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1985, 56, 1–14.
- Stern, D., *The First Relationship : Mother and Infant*,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1–30.
- Talbot, N.B., Kagan, J. and Eisenberg, L. *Behavioral Science in Pediatric Medicine*, Philadelphia, Lon-

- don, Toronto : W.B. Saunders Co., 1971, 13-16.
- Taulor, P.M., Taylor, F.H., Cambell, S.B., Maloni, J.A. and Cannon, M., *Extra Early Physical Contact and Aspects of the Early Mother-Infant Relationship*, Acta Paediatrica Scandinavica, Supplement, 16, 3-14.
- Thomas, A. and Chess, S.,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 /Mazel, Publishers, 1977, 66-81.
- Tulman, S.J., Theories of Maternal Attachmen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1, 3(4), 7-14.
- Turley, M.A., A Meta-Analysis of Informing Mothers Con Odors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83, 12(3), 147-153.
- Price, G.M., Sensitivit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 The AMIS Scal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983, 6, 353-360.
- Ragucci, A., The Ethnographic Approach and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1972, Nov.-Dec., 21(6), 485-490.
- Reimer, T.T., Brink, P.J., Saunders, J.M., Cultural Assessment : Content and Process, *Nursing Outlook*, 1984, 32(2), 78-82.
- Rheingold, L.H., To Reare a Child, *American Psychologist*, 1973, January, 42-46.
- Riesch, S.K., Munns, S.K., Promoting Awareness : The Mother and Her Baby, *Nursing Research*, 1984, 33(5), 271-278.
- Rojas, D., Effect of Maternal Expectations and Child-Rearing Practices on The Development of White and Puerto Rican Children,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80, 9(1), 99-107.
- Rubin, R., Maternal Touch, *Nursing Outlook*, 1963, 11, 828-831.
- Rubin, R. and Erickson, F., Research in Clinical Nursing,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77, 6(3), 151-164.
- Rubin, R., Binding-in in the Postpartum,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77, 692, 67-75.
- Shaheen, E., Alexander, D., Truskowsky, M. and Barbero, G. cering the Sensory and Perceptual Capabilities of Their Infants : The Effects on Maternal-Infant Interaction,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85, 14(3), 183-196.
- Walker, S.O., Thompson, E.T.,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in S.S. Hurnenick(Ed.), *Analysis of Current Analysis of Current Assessment Strategies in the Health Care of Young Children and Childbearing Families*, 1982.
- Watson, J., *Nursing,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 Whiting, J.W.M. and Child, I.L.,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3.
-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fant Interacting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Newborn Infant Feeding in Korea**
- Han, Kyung Ja**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mother-infant interacting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newborn infant feeding and to explore the mother's cultural belief about their infant.
-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observation and interview. Twenty-five mothers and their newborn infants who were normally delivered and were also planned to breastfeed were compris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 All subjects were interviewed and observed individually at 1 to 5 days after the delivery at the hospital, mid-wife's clinic, Maternal Child Health Center and their home throughout the country from remote area to big city.
- The observation data were recorded with symbolic letter on a recording sheet newly developed as a result of preliminary study. The interview data were taperecorded and then recorded in narrative

*Seoul National Univ., Dept. of Nursing

form.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s in early feeding period were analyzed based on 19 analytic sub-categories and their composing elements.

Unit of analysis were mother, infant and mother-infant dyad. 8 analytic categories draw from the data.

Each were preparation, instrument, interaction inducing, evaluation referred to mother's behavior, preparation, instrument, interaction inducing referred to infant's behavior and synchronic behaviors referred to mother-infant dyad.

Frequencies of behavior items based on the categories were converted to percent.

The result showed that in mother's preparation behavior, the breast condition of Korean mother can be an affecting factor for mother-infant interaction during feeding, and vocalization behavior was observed most frequently in interaction inducing behavior while the least frequent behavior observed was contacting.

Subcultural characteristic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s were analyzed for their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of mothers who have lived in remote area vs urban area, and who were multipara vs primipara.

Using a chi-square te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in the activity of psychological readiness in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ovement of extremities for the position of instrumental behavior in both groups.

However, interaction inducing behaviors were not rela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ny set of groups.

Accomplishment of marriage, bonding and emotional mediation of family members were the categories related to mother's cultural belief about the infant in aspect of functional values. Infant at birth is considered little more than a biological organism without social capabilities. Although the newborn infant is still be attached to his mother, he makes his mother extend her territoriality.

The mother's interacting behavior toward her infant based on those beliefs appeared task oriented, separative behavioral series.

On the other hand, it was seen that infant reacted independently to his mother's behavior by the innate perceptual abilities.

Those independent behavioral series of mother and infant on the feeding situation were synchronized at any moment.

Nurses are in a unique position to teach mothers about their infant's capabilities and help reducing some of uncertainty about infant's behaviors.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formations infant's social capabilities and breast feeding should be given to the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nursing.

First, the study results will be used as fundament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tool about 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Second, the results could be a relevant information in the field.

I of maternal child nursing education as real and useful data.

Third, the behavioral patterns of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which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could be used for nursing theory development as very fundamental data.